

값 내리고 푸짐하게... 고물가에 가성비 'PB 전성시대'

(자체 상품)

대형마트·편의점·이커머스 매출 급증...식재료·간편식 등 품목 확대 절약 소비 확산·물가 상승 반사 효과...맛·품질 개선으로 이미지 변신

외식 물가 상승으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간편식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격 대비 품질을 뜻하는 '가성비'가 소비자의 선택 기준으로 굳어지면서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자체 상품(PB) 간편식 인기가 치솟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간편식 PB '요리하다' 상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 곰탕이나 떡국, 만둣국, 찌개류 등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같은 기간 이마트 PB인 '노브랜드' 간편식 매출도 약 15% 늘었다. 한 끼 식사 대용인 냉동·냉장 간편식 판매가 25.6% 증가하며 전체 매출을 견인했다.

홈플러스도 3년 전과 비교해 올 1~10월 PB 상품 매출이 52%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HMR 제품의 매출은 엔데믹이 찾아 왔음에도 전년보다 7% 늘었다. 엔데믹 이전인 지난해 1~10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이 79%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지만, 고물가 영향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편의점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1~11월 GS25의 PB 도시락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0% 증가했다. 올해 1~3분기 전체 상품 매출이 6.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장세다.

이 가운데 '김해자 도시락'으로 불리는 '해자로 운집밥 도시락' (7종)은 지난 2월 출시 이래 지난달 말 현재 누적 1790만개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올해 최고의 히트 상품에 올랐다. 290일간 1분에 43개씩 팔린 것으로 직접 매출 효과만 1000억원에 육박한다. CU에서는 초저가 PB인 '헤이루(HEYROO) 득템 시리즈'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올해 1~11월 매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168.8% 늘었다. 2021년 3월 출시된 득템 시리즈는 라면, 피자, 시리얼 등 간편식과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었다. 가격이 기성 상품(NB)의 절반에 불과해 편의점 주 고객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끈다. 출시 당시 10여개에 불과하던 상품 수도 올해 40여개로 확대됐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집밥족'이 늘면서 이커머스에서도 PB 식재료는 물론 간편식이 인기몰이를 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 티몬의 신선식품 PB '티프레쉬'는 지난달 한 달간 매출이 전달보다 61% 증가했고 구매자 수도 50% 이상 늘었다. 티프레쉬는 티몬이 전국의 농어민과 직접 계약해 산지 직송한 29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중간 물류 과정이 빠지면서 가격경쟁력은 물론 신선도를 한층 높인 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요인이라고 티몬은 설명했다. G마켓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스마일프레시' 역시 올해 8~11월 신선식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늘면서 외식 물가 상승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봤다. 11번가는 급속히 커지는 간편식 수요에 대응하고자 아예 PB 간편식 제품을 직접 기획해 시장에 내놨다. 지난 6월 처음으로 냉동 간편식 6종을 출시한 이래 꾸준한 상품 수를 늘려 현재는 50여종을 운영하고 있다. 매출이 출시 3개월 만에 1억원을

기록할 만큼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11번가 측은 설명했다. 이처럼 PB 간편식이 높은 인기를 누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외식 물가 상승의 반사이익인 측면이 있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이어진 유통업체의 품질 개선 노력도 한몫했다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공신력 있는 제조사 또는 외식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고품질의 차별화 제품을 잇달아 시장에 내놓으면서 그럭저럭 먹을만한 싸구려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든든한 외식 대용 한 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PB 간편식이 내세우는 가성비는 저렴한 가격보다 높아진 품질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외식 물가 부담에 더해 1인 가구 비율이 지속해 높아지는 추세여서 간편식의 인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나만의 향으로 개성있게"

광주신세계 2층 향수 브랜드 '아쿠아 디 파르마' 직원들이 니치향수를 선보이고 있다. 니치향수는 전문 조향사가 각 브랜드의 특징과 정체성을 살려 만든 프리미엄 향수로 차별화 된 향을 찾는 고객들이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에서 니치향수는 지난 달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새 지난해 동기 대비 30.2%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광주신세계 제공>



신세계푸드, X-MAS 케이크 "올해도 9980원"

신세계푸드는 작년과 같은 9980원짜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등 고물가 시대를 극복하는 가성비 케이크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9980원짜리 '뽕뽕' 캐릭터 케이크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는데 올해는 '꽃가' 캐릭터를 활용한 케이크를 선보인다. <사진> 작년 12월 신세계푸드가 출시한 9980원짜리 케이크는 출시 3주 만에 1만5000개가 판매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케이크 판매량과 비교해 30% 증가한 것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밖에 신세계푸드는 '꽃가와 함께 부쉬드노엘', 'X-MAS 딸기 케이크', 'X-MAS 치즈케이크' 등을 선보였는데, 모두 가격은 2만원 미만이다. 신세계푸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이마트 내 '블랑제리'와 'E베이커리' 등 130여개 매장에서 판매한다. 신세계푸드는 고물가, 고금리 영향에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이런 케이크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마트, 베트남 호찌민에 3호점 문 연다

'노브랜드'·한국 상품 확대
이마트는 7일부터 베트남 호찌민시 판후의 지역에 현지 3호 매장을 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 3호점은 2100평(약 6930㎡) 규모로 같은 호찌민시에 있는 1호 고밥점(1800평)이나 2호 살라점(1200평)에 비해 크게 확장됐다. 늘어난 면적은 대부분 한국산 상품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마트 자체 브랜드(PL)인 '노브랜드' 상표를 단 국내 중소 협력사 제품이다.

실제 3호점의 노브랜드 매장 면적은 1호점 대비 60% 넓다고 이마트는 소개했다. 노브랜드가 베트남 현지 고객들 사이에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한국산 상품 브랜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올해 베트남 이마트의 노브랜드 매출은 지난해 대비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호점의 경우 노브랜드 매출 비중이 전체 10%를 넘었다. 3호점에서는 1~2호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한국산 농산물과 K-푸드를 선보인다. 즉석식품을

판매하는 델리 코너에서는 한국과 동일한 이마트 피자과 김밥 등이 현지 고객들을 맞는다. 배송 지역을 확대하고 배송 가능한 상품 수를 늘리는 등 배송 경쟁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마트는 베트남 현지 타코그룹과 손잡고 2015년 12월 고밥점을 개장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 2호 살라점을 오픈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고밥점은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되는 대형마트 가운데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점포로 손꼽힌다. 이마트는 3호점이 그 규모에 걸맞게 머지않아 고밥점의 매출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이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9%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전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